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같이 고난을 받느라
알라.

장석자 三十五명
◎住吉전도강연(五月廿九―卅)
강사 박 두성 전도사
장석자 三十五명
◎西成교회(五月卅一―一)
강사 박 두성 전도사
장석자 三十五명
◎합곡사(영안)二十五명
강사 조기선목사

선교二十五주년 기념전도집회
준비하던 판서지방교회에서
지난달 十二日 전영택 목사
맞이한 가와나시(川西) 교회
사경회를 개최한후 산하각교회

○高規노랑전도회
창출
二十廿
○九條교회(五月十七日)
감사 김원천목사
참석자 三十명

◎住吉전도장영 (五月廿九日)
장석자 삼십오명
가사 박 두성 전도사

◎成道山 (五月卅一日)
장석자 삼십오명
가사 박 두성 전도사

◎佳吉전도장영 (五月廿九日)
장석자 삼십오명
가사 조기선목사

이같은 전도집회에 많은 참가자가 있었다는것은 일반신도의 가정방문전도와 노방전도 필손전파 관능(幻燈) 영화의 영향에 있었다.

露国人民에게 멧세지

◎川西鹽池(五月十二日十四日)
감사 전영택목사
평군참석자 매일二十五명
◎神戸鹽池(五月十五日十七日)
감사 박동성전도사
前所一자 전영택목사

1. 露國人民에 2. 對한 3. 敬의 4. 文 5. 字 6. 本 7. 文 8. 字 9. 本 10. 文 11. 字 12. 本 13. 文 14. 字 15. 本 16. 文 17. 字 18. 本 19. 文 20. 字 21. 本 22. 文 23. 字 24. 本 25. 文 26. 字 27. 本 28. 文 29. 字 30. 本 31. 文 32. 字 33. 本 34. 文 35. 字 36. 本 37. 文 38. 字 39. 本 40. 文 41. 字 42. 本 43. 文 44. 字 45. 本 46. 文 47. 字 48. 本 49. 文 50. 字 51. 本 52. 文 53. 字 54. 本 55. 文 56. 字 57. 本 58. 文 59. 字 60. 本 61. 文 62. 字 63. 本 64. 文 65. 字 66. 本 67. 文 68. 字 69. 本 70. 文 71. 字 72. 本 73. 文 74. 字 75. 本 76. 文 77. 字 78. 本 79. 文 80. 字 81. 本 82. 文 83. 字 84. 本 85. 文 86. 字 87. 本 88. 文 89. 字 90. 本 91. 文 92. 字 93. 本 94. 文 95. 字 96. 本 97. 文 98. 字 99. 本 100. 文 101. 字 102. 本 103. 文 104. 字 105. 本 106. 文 107. 字 108. 本 109. 文 110. 字 111. 本 112. 文 113. 字 114. 本 115. 文 116. 字 117. 本 118. 文 119. 字 120. 本 121. 文 122. 字 123. 本 124. 文 125. 字 126. 本 127. 文 128. 字 129. 本 130. 文 131. 字 132. 本 133. 文 134. 字 135. 本 136. 文 137. 字 138. 本 139. 文 140. 字 141. 本 142. 文 143. 字 144. 本 145. 文 146. 字 147. 本 148. 文 149. 字 150. 本 151. 文 152. 字 153. 本 154. 文 155. 字 156. 本 157. 文 158. 字 159. 本 160. 文 161. 字 162. 本 163. 文 164. 字 165. 本 166. 文 167. 字 168. 本 169. 文 170. 字 171. 本 172. 文 173. 字 174. 本 175. 文 176. 字 177. 本 178. 文 179. 字 180. 本 181. 文 182. 字 183. 本 184. 文 185. 字 186. 本 187. 文 188. 字 189. 本 190. 文 191. 字 192. 本 193. 文 194. 字 195. 本 196. 文 197. 字 198. 本 199. 文 200. 字 201. 本 202. 文 203. 字 204. 本 205. 文 206. 字 207. 本 208. 文 209. 字 210. 本 211. 文 212. 字 213. 本 214. 文 215. 字 216. 本 217. 文 218. 字 219. 本 220. 文 221. 字 222. 本 223. 文 224. 字 225. 本 226. 文 227. 字 228. 本 229. 文 230. 字 231. 本 232. 文 233. 字 234. 本 235. 文 236. 字 237. 本 238. 文 239. 字 240. 本 241. 文 242. 字 243. 本 244. 文 245. 字 246. 本 247. 文 248. 字 249. 本 250. 文 251. 字 252. 本 253. 文 254. 字 255. 本 256. 文 257. 字 258. 本 259. 文 260. 字 261. 本 262. 文 263. 字 264. 本 265. 文 266. 字 267. 本 268. 文 269. 字 270. 本 271. 文 272. 字 273. 本 274. 文 275. 字 276. 本 277. 文 278. 字 279. 本 280. 文 281. 字 282. 本 283. 文 284. 字 285. 本 286. 文 287. 字 288. 本 289. 文 290. 字 291. 本 292. 文 293. 字 294. 本 295. 文 296. 字 297. 本 298. 文 299. 字 300. 本 301. 文 302. 字 303. 本 304. 文 305. 字 306. 本 307. 文 308. 字 309. 本 310. 文 311. 字 312. 本 313. 文 314. 字 315. 本 316. 文 317. 字 318. 本 319. 文 320. 字 321. 本 322. 文 323. 字 324. 本 325. 文 326. 字 327. 本 328. 文 329. 字 330. 本 331. 文 332. 字 333. 本 334. 文 335. 字 336. 本 337. 文 338. 字 339. 本 340. 文 341. 字 342. 本 343. 文 344. 字 345. 本 346. 文 347. 字 348. 本 349. 文 350. 字 351. 本 352. 文 353. 字 354. 本 355. 文 356. 字 357. 本 358. 文 359. 字 360. 本 361. 文 362. 字 363. 本 364. 文 365. 字 366. 本 367. 文 368. 字 369. 本 370. 文 371. 字 372. 本 373. 文 374. 字 375. 本 376. 文 377. 字 378. 本 379. 文 380. 字 381.
--

맞이하여 가와나시 (川西) 교회
사경회를 개회한후 산하각 교회
교역자들이 교대로十一개소의
교회와 전도소에 집회를 열었
다.
각 교회 집회장황은 다음과같
다.
◎川西교회 (五月十二日十四日)
감사 전영택목사
평균참석자 매일 二十五명
◎神戸교회 (五月十七日)
감사 박무성전도사
[附記]자! 전영록목사
평균참석자 매일 五十명
◎大阪교회 (五月十八日)
감사 박무성전도사
참석자 三〇명
◎牧岡전도소 (五月十九日)
감사 최 정수목사
참석자 三〇명
◎牟野교회 (五月二十日)
감사 최 정수목사
참석자 四十명

자유를
露國

당사 김원치독사
참석자 三十명

미국 기독교교회와 기
의하면 지난 三月十二일
하 협명 제三十五회 기
(記念日)에 미국 각계
자들은 로서아 인민들에
세—자를 보내었다는데
에 서명당한 사람들
뉴—욕자사(知事)
대통령(大統領)이던
후—박사(後—박사)와 여러
의원, 대교수들과 신
인들을 다수였다는데 그
의 세용은 대략 다음
로서아 인민은 三十五

미국 미시간주 매쿼나카

참석자 김원치·육사
 람별 부인
 참석자 평正 四十명
 ◎京都立회 (五月廿八日)
 강사 람별 선교사
 참석자 一五〇명

정로서야의 속박에서 최소의
회생으로 혁명을 이르게 귀
한 자유를 획득 하였으나
오늘에는 다시 공산주의자
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막
달 당한 사실은 깊이 동계
하는바이다. 로서아인민들에게

미국 미사간주 에러나쿠섬
서 개최중인 북미대회는
난 3월부터 개최 되었는데
아회의에 참석 미국 원자
(原子彈) 제조에 관한 문
교주는 일본대표(日本代表)
히로시마(広島)와 나가

고내 안전책이나 도

1
세개와 인류의 위기를 말하
는 오늘날에, 우리는 민족파
나라의 위기를 열려하게 되었고
과, 또 불행의 도 교회의 혼란
과 위기를 걱정하게 되는 이
때에, 또 다시 근원의 신원지
는 우리 정부와 위기를 전하
게 되고 그것이 우리 민족과
조국의 운명의 판게될이 크리
라하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되
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몇가지 사건과 대통령과 국
회간의 대립에 대해서 말하
부의 시비를 말하려는 것이아
니오 다만 왜 이런 혼란과

2
 그렇나 여기에는 더욱 우리에
 게 관심거리가 되고 열려져 있는
 것은 최근의 이르러 이러한
 교회와 사회 및 정치적 정세
 (政治的情勢)의 영향을 받아
 서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닥쳐온 것임이다.
 우리의 일어난 위기를 무엇
 이냐. 첫째는 '나침 문'이다. 되
 고 싶은 과로 되고 있다' 하고 무
 수 것을 하든지 내나 외교

첫째의 개민주의적 경향은 국내에도 물론 유혈 혁명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여 나라 시민이 되어서도 편히 살자"고 하면서도 모오런 국에서든 돈만 모으면 내 정체가 변하는대로 순용하고 타협하자는

[illegible]

이 또한 근원의 사상적 정신
 적 원인은 결국 비판과 절망의
 에 기초치 않을 수밖에 없지만
 는 것으로나 위정자의 책임과
 죄도 모르지 않는 일면으로 지
 한 집합으로 보려는 사람들
 자식도 없이 흐르는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다음에 민중이 이
 개민적, 자살적(自殺的)인
 정을 가진대 대하여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하나 할 수 없
 으니 이제 교회는 어엿이 서서
 물소, 회생적인 십자가의 정
 신을 위한 광난도도(狂瀾濤
 濤)의 험한 풍파중에도 하
 는 줄을 바라보고 웃고 노래하
 는 일이고 산(生) 신앙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알았다.

나쁜바아니라 서구라파와 『미
국인들은 제3차 대전을 방지
하기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꺼내지 않는자가 있었다』 하
였다. 나는 미국국민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할수있다. 『오스코바
에서도 제2차 대전을 막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보
았다.

후자는 비우술년지 모르나
기독교자로 또는 서로 이해(理
解)함으로 새로운 세계를이들
수있다고 생각한 나는 위
기에 직면한 수백만 수천만을
방관할수 없는것이다.

회의 사실이 있었다. 약二十年 전 에 그 략해가 정지되자 모 스코바에서 예배보는 교회수는 겨우二十一개소였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六十개소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교회는 주일마다가 득점뿐만 아니라 주일외에도 교회를 찾는자의 수는 연속부절 이하. 그러나 젊은사람은 주일 외에는 전연 접근하지 않은것은 나치독일때와같다. 그러나 젊은 이들이 교회에 전연없다고 결론을 지을수는없다. 그 이유는 현재 교회에 나오는 열장자(나 많은이)들도 청년 시대에는 볼스배출 아래서 종교교육은 못본자들이였으나 전제기독교자가 된것이아.

철통하고 있다. 그들은 신부나
 수도사나 할례없이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라는 것의에
 정처지 제도에서의 관리와도
 볼수 있는 의심점을 느꼈일이 없
 다.

로서야 교회 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교회 가 아니라 유수권리
 들 받은 교회라는 기색도 없었
 다. 어떤데야나 교회는 공법의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묵인된 결
 상으로 정처와는 이방인의 같
 은 존재였는게 그 현상은 언
 제나 계속될것으로 보았다. 그
 중거는 승로 신부들이 신부옷
 을 입고 길다한 옷을 갈며
 길가 조술 보는 시민들의 태
 도가 조술과 보게 서권것임을
 조술과 보게 서권것임을

그와 같을 것인 (대속)

[illegible]

두일 북을주의 교회와 부가
두일 외무장인 말린 나
매일 사의 쓰린방문은 이
모두 한이 아니와 그는 세
평화를 기두교면에서 어
시킬수 있다고 생각한

온 두獨立한만 아니라 서구라파
민중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을
알뿐이다. 이에 대비할 능력도
미약한것뿐이다. 우리가 인식하
는것은 평화적 이해(理解)에
장래되는 피차의 신임(信任)에
이 없다는것이다. 우리는 이

라-립의 선전도구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까 의식이 여하간. 오늘 의 쓰런교회는 존 재하기까지 많은회생의 제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서구과파 는 그들과 천밀하게 사피일수 가 없었던 것이다.

바의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수
천명의 출세자가 있었는데 장
소가 좁아서 도라간 자들도 있
었다. 그날일은 벨레스트 교회
에도 있었다. 나는 거기야 말
로 예수그리스도의 회중이로구
나 하는 생각에 의심한대는

이 문적여야 되겠읍니다.

『생각한다.』

일본기독교文協會結成
 일본에서는 기독교문필가협회
 결성되었다. 이 협회의 결성
 프로테스탄트 선교받은
 년간, 일반문화면에까지
 음적 신앙자료를 전출시켰으니
 선교년을 맞이할 때에
 중교회를 복음적 문장으로
 명백한 정루를 시키자는데
 적의 있다한다.

나는 왜 모스
 말틴

매라 박사

이 되는 이 화향당 서대로 주터 대학에서까지 개속하여 二十七年 동안을 우리 여성교육에 몸바쳐 이제 백발이 되신 이화 사범 이후 이 년간을 일본에서 생활 되기를 기다리다가 이번 에 부득이 (六월一日)에 귀국 하게 되어 찾아간 기자에게 내 가 한국에서 가르친 사람이 일천 백명이 넘지요 마시 한

니 메라

은지 다음에 소개하는 모스 코바 방문기 (크리스찬센 주리 에서 드러보기로 하자!

나와 쓰림방을여행은 기독자로서의 역활이었다. 히틀러를치하에서 쓰라린 경험을 경파한우리로서는 쓰린 표지에서 "웃이 하날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하는기도를 하고있을가하는것이였다.
三十四年간이나 박해를받았다. 오홀리 쓰림방의

나는 지금 일본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의 주필로서는 한 친구 친구들에게 몇 말을 작별인사를 부치는 죽음을 가지게 된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一千九百十五年八月에 내가 한국의 땅을 처음 다닌그달부터 나는 한국사람과 감산물 사랑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그달그날 시카고시에 자비하신 하나님께 충복을 받은것을 엮드려

하 주서기를 부르짖나니
자유세계의 많은 천주들이
여러분에게 손발 들어 인사를
하는것을 기약해 주십시오요.
마지막으로 평화 천선이 다
시 이환난의 세계에 운때에나
는 한국에 다시 와서 여러분
을 만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平野教會 첫공의회회
平野교회에서는 지난(一)주(一)
예배후 서성교회 김원치목사를
교회에 아해들은 많이 보였
다. 교회수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자콥슨(모스코바에서
十키로지점)까지 나가는 주일
아침에 다섯초락을 시냈는데
그 초락에는 매 우락마다
있었고 있었고 예배를 보고들
있었다. 十二월三十一號로
일의 끝에서 개회한 모스크

人事

○을락嬢(卽安烈宣教師令嬢)
六月十一日橫浜出發歸國

○吳方右牧長 在日本基督教總會
會長任員出席次神戶出張

○田榮澤牧師(本社主筆) 下関及
九州地方教會訪問次六月十四日
東京発出張

俞錫澤長老(總會常務) 手付
○李錫鍾趙雪亭(歸國人事次來訪)
○아담士宣教師 十四日 韓國歸任
○스미스博士美國北長老會宣教師
總務 是 韓國視察次十四日空路
向釜山

△ 주역 자비하신
주의 조국을 위하여
여비유나나 배서
은 굿어죽을 지경
임에 정치는 혼란

자로
 지고 있는 이인데
 일본대 표에 비
 원한을 나타내며 사죄한다 하는
 을 표하였다. 대히 수
 작으로 시키고
 『원자의 놀라운 예비루』가
 인물의 해독을 위하여 사료
 의인 못하고 도로혀 파괴되는
 위하여 사용된 것을 유감으로

전취양

4. 國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변에 할 수 없이 갑니다. 한국
 여러분에게 자별인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
 다.

앞날에 하 나 님 의 두 마 은 주
 에 이 러 는 각 사 람 의 머 리 위
 나 어 러 지 다. 어 러 본 은 어 러
 가 지 않 은 슬 롭 과 손 실 과 참
 속 한 화 롑 가 운 에 서 도 그 리 스 도
 와 그 나 를 위 하 고 또 그
 리 스 도 안 에 서 새 로 운 묘 약 과 문
 화 를 건 설 하 실 에 구 주 하 노 렷

折尾伝道所 移転
 福岡県遠賀郡水巻町에
 折尾伝道所는 八幡市折尾町
 日吉五丁目 へ 移転하였다.

관청 료유계 실업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수다하다.

세상의 돌보지 않고 법대하
는 이런 사업에 활동하는 이들
에게 스스로 위로되는마 크리
라고 말한다.

아셔 와본다면 나로라도 더 설
설할필요 이땅의 기죽표가 건
으로는 발전된것 같아도 속 생
명은 없는것 같구만요.

조형

요새 「야스쿠니」 십사에서 소

이 되고 후로 두기만 하라
인심과 경향을 의심하
노름이오 이노름에서 오
새들의 정신적 경향을
있는데 나는 제발 우리
건너가자 밥서사고 합니
(해수)

電 岐
託 阜

市加納町九丁目
番二九六番

岐阜市加納町九丁目
電話二九六番

100

禮
關西教會訪問記 (3)



내 집을 채우라

名古屋教會牧師金德成

주인이 주에게 감사하며... (Main text of the article 'Fill Your House' by Pastor Kim Deung-seong, discussing spiritual fulfillment and the role of the church.)



學校教師講座

學生의 役割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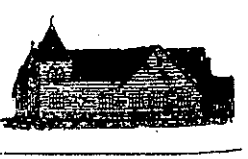
魯安理

五 자기들이 할 일을... (Continuation of the 'Student's Role' article,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students in a Christian context.)

宇宙와 세계를

創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세계의 창조자... (Article discussing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the world by God, emphasizing His power and wis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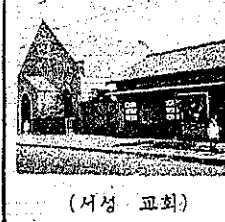


教會巡禮

秋 湖

西成教會(五月十日) 北部教會(五月十一日) (Detailed report of church visits to West City Church and North City Church, including descriptions of the services and the church buildings.)

아버지발자국 (Continuation of the 'Footprints of My Father' article, reflecting on the life and teachings of Jesus Christ.)



神學博士 張利郁 譯
法學博士 李亨烈 筆

그러나 두가지 양식의 특징을 이가하려는 것을 방지하
의 료대가 되는 유트리아주의 는데 그 근본목적에 있는것이
와 도덕무시주의 와의 차이를 다.

부패가 락하였다 고	주의 뜻을 한기 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
여 그 본래의 이상으로 부터 이 불의의 원인이 될수 있다	정의를 보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근
유가를 가진 전제정치에 대하 본 목적에 복구하고 이것을	주의의 중요한이 그러나 정의를 모호 하지는 않는다
주시하는대는 보다더	

하여 주께 한대야 소용이 없는 형래의 파도한 전격일을 물론
그들의 민주주의적 혼란 구설가 하고 그것은 심에 있어서 위
을 줄의 몽상에다가 회포 구제 의와 인간사상에 대하여
아. 꼭요하다. 모든 인식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죽 파도한것
약소주의적 역을 지배될 때에는 자기자신

환상	幻象	그	근본적	사	의	안전을	위하여서만	아니만
오는	오는	사유재산제	私有財産	자기적	적	확대를	위하여	사유
가	가	공인	公認	가진	하	려는	유혹을	받게
비사회적	非社會的	경쟁의	競爭的	원천	源	이다	그러므로	정치
고	고	있었다	있었다	이것은	이것은	十八	면에서	있어서
은	은	비사회의	非社會的	원천	源	이라	한다	그러므로
정치	政治	경제	經濟	형식	形式	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經濟	형식	形式	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형식

九世기에 성대한 인간성에 대
한 자유주의적 해일이 다른
태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현상물 그중의
일기만 구별된다. 인간성
을림인 것이다. 인간성
유지하는 것이
인간성
인 것이다.

에 대한 순수한 사회적 또는 제도에 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공의를 의생 하고라도 도모하려는 인간의 성 경이 불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상(上)의 모든 시설을 이용한다고 판정 태도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도를 가지 러나 경제세력에 좌하여서는 정(正)의 원천이 될 것이 점점 비판적태도를 산출

講座
민주주의
(20)

第十章

新聞

출판자유는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큰 세력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찌 있어서는 지니는 것이 모든 보도물 자유로 기의 재하고 또 일반에게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 여론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그 국민이 민주주의의 해택을 입고있는 것을 알 수 있어온다. 그 반면 어대서나 평과기에 있어서민에게가 구속을 받고 유죄와 노선이

개는 전제주의적 독재정권의 수괴는 누르고 있다.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유정치는 출판자의 권력은 서로 난호출판업에 관계는 서로 난호출판업에 관계는 서로 난호출판업에

기을 가지고민주주의의 상충을 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자 출판자유는 물론 일반도서 자

지 기타 소책자 출판물 진흥을 위하여는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민주의 일상생활의

말로 일반민주의 일상생활의

있어 그 사상과 행동

한데 있어 그 사상과 행동

주님은 부르신다 小雲

가게 문명이 이전의 농경문화
(農耕文化)에서 볼 수 없는
경제력의 위해서 조성하였을
것이지 사회의 경제상유권자
에게서 나온 상업적인 사회에
있어서 아닐까 농경사회에서
다국 절대적으로 되고 말았다
이 파오야 말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반대파
를 초래한 것이요. 이의하여
상소유제에 대한 종교적 존경
심은 나침내 그 소유권을 말
할 함으로서 인류를 구원한다
는 새로운 종교를 발견케 하
였다. 맑스주의가 재산을 소유
하는 사람에게 경제력이 존재
하는 것이라고 그릇 판단 하고
그 반경 사유재산제에 없는
사회에도 경제운역 지배자의
력이 존재할수 있는 것을 인식
하지 못하였으니 만큼 그 사
회화의 정제온 단순히 경제와
정제세력온 함께 두체정권에
넘겨주는 법파로 되어 폭정의
위험을 중대화트 뿐이다. 이
파오 온 인간성과 역사에 대한
다른 모든 오산(誤算)과 아
울러 전제주의에 얽한 추세에
박차를 더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이 모든
구실은 항상 제공하도록 유도

주님은 부르신다 小雲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속고하고 두가운데 있을
바람은 쓸쓸하고
해 저문 거리에
장한채 잘난채 해도
오 너도 내게로 오 너라
하숨짓는 어머니도
어디로 갈까 감광절광

수심아 기득하고
고개를 속이고
무거운 발을 옮기는 젊은이
유혹의 거리 패망의 길을
마치 생육의 동산인양
붉은 꽃 피람새들을 찾아
두눈에 눈물이 어리고
해마다 돌아올을 모르는

뽕소현 일광을 속이고
 고달픈 거름을 주는 처녀의
 오이씩 보고 귀여운 딸아
 나는 내키지도 모니라

 오점흔이 너도 바게도오라
 주님은 두팔을 벌리시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달들아 내게로 오라」고

청없는 어린것들의
 손목을 붙잡고
 소리쳐 부르신다
 지금 너를 부르신다
 一九五一、十二、五
 전해에서

느니 만종 이것이 민중에게
관대되는 모든 사건을 자유로
히 보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다 더 넓은 가치는 주 모든사
람에게 선군이 출판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주
어준다. 이윤이다. 그리고
이윤은 민중의 하나로 인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민중주의에 대하여 피상적이
해한 줄 가진 사람은 이 출판
자유의 위대한 가치는 어느
개인이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 생각도 또 더 널리 보급된
다만 그만큼 우리는 진보적
이념이나 무는 문제에서 대해서
이 생각도 또 더 널리 보급된
다만 그만큼 우리는 진보적
이념이나 무는 문제에서 대해서

그리스도를 공히 발표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고 생각함으로 모든 자유에 있다고 생각함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여기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의적 국가에서는 이것을 단압

[illegible]東京通信⁽⁴⁾

되고 있다. 아마 현세의 정세에 있어서 역사적 변화의 기연(奇緣)이 될 것은 즉 미국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 침략을 방어하는 보초가 되게 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 정신은 감지능력의 파장파 정의 수련의 관계에 대한 착각을 흐트러 하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를 일은 나라도 우리의 같은 천성은 오직 우리의

같이 해택을 입은 나라로서 궁핍한 구라파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정치문제로 부딪히며 적고 후를 다말는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구라파에 간교하게 달려드는 공산주의의 구태어른들 죽여 없이는 이상적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때려놓

(二篇六단에 계속)

信(4)
 조형
 어제는 비가
 줄줄 오더니
 나가는 데
 각기관에서는
 찰정 자리가
 좁
 허가는 모양이
 보이고 남녘도

東京通
一田榮

男
 내일은 또
 바가 올지도 모
 르다.
 이제
 아령의 장마철
 에 드러가니
 물도 아주 썩씩하
 는데요 웅천호
 에 파괴되었는것은
 八개소가
 부흥선축되고 새로
 가맹된 시

지난편에는 이땅 사람들의
나쁜 면모와 타락상을 말하였
으나 도상 그렇게만 볼것도
아닌걸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은 그 나
쁜 면모로 잘나가는데 이번
에 이국에 원조를 청한것이
약二百五十만 원이라나다. 가가

그대들.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 하는지. 이 공 거 활동에 있는 대각에서 불 발에서 학생이 가득 두루 들어 있어서 공부하 고 대개는 공 을 할 줄면 노의 開拓者 福晉과	와 (賀川) 씨가 주재하는 그리 게 회개할 줄 이 이제 일한 하고 있고, 원한 수심은 줄 여가 있다. 그 중에는
--	---

학이라 될한뒤에 남자가 작은
지어 돌아가는것도 그럴듯하니
다. 그새들에게 새처럼 공금하
는 일생이게는 밤새도록 덩어
져서 되면서 돌아오고 있었다.
대전도회를 한 결판 동지에서
대관 신신자세

世界 改事底世界 등.
賀川씨의 인기는 좀 떨어졌
지만은 여전히 맹렬을 하고 있
는데 저번에 대한 동지에서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아니한 고이라우엥(후락원)이란 운 동은 전기설비까지 평정하 여	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회개 한 후 다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서 그 때에 이르러서 는 오순절에 이르러서
해 뜬 날까지 요새도 가장 성령하고 요새도 가장 성령하고 요새도	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회개 한 후 다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서 그 때에 이르러서 는 오순절에 이르러서

인조빙 스켈에서 서는 스켈틀을
하는 모양이 외다. 낮에는 일하
고 공부하고 밤에는 「스쿨보
디자고 後樂園」라고 고하
는 말이지. 後樂園은
부흥을 하고있고
미교 (山室民子) (산실민평씨)
「넵」이 관세
버리고 다시
부흥을 추진한
것이지. 만가
모양이지.

그리고 각자 학회(學會)가 있어서 방법을 따라 연구할 수 있는 데 역사로 의료로 문예로 자연과학으로 사회과학으로 이렇듯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동운동도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도 알고 또 우리가 할 일이다. 동경에는 『형제간』이라는 우리가 있고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K형 그리고 이곳에 우물등에 성당에 한 줄이	교회에 Y M 한 줄이	우리가 있다는데 하천서는 원	것을 二百年전 옥스포드의 웨슬리언파의 기도운동에 비한
--------------------------------------	--------------------	--------------------------	--

祝 基 督 申 報 發 展

스타리·존스 博士原著

그리스도와人生苦

受難民族의 必讀의 書
苦海에서 燈台를 보는 듯 한
이冊의 內容!
한글工夫를 兼 하여
一讀 하라...

申込一은
東京都千代田區
中央郵便局私書函第八四號
基督申報社
振替東京182538 番
電話 神田(25)2623 番

主筆二虎本
聖書知識

最新刊
福音書異同一覽 一三〇圓 丁65
ヘブル書講義 一〇〇圓 丁20
聖書の讀み方 五〇圓 丁10
☆ 定價 一部30圓 年三六〇圓(各丁共)

親切迅速
写真業出張撮影

天然色製作
衣服商 各色高級衣服

白
羊
商
店

主 鄭慶道

京都市下京区九條車庫東隣

電話下(5)八〇九一番